

HUMANISM

ESTHETIC

LEADERSHIP

PROGRESSIVE SPIRIT

EXCELLENCE

RESPONSIBILITY

STEWARDSHIP

KYUNG HEE DENTAL SCHOOL NEWS LETTER

HELPERS

VOL.3. 2012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뉴스레터

SPECIAL REPORT

- 02 HELPERS 비전과 목표
- 03 치의학전문대학원장 인사말
- 04 연구비 지원받는 MRC 사업 선정

NEWS

- 06 학교 소식
- 08 교실 소식
- 10 동아리 소식

FOCUS

- 12 해외 탐방
- 14 해외 탐방

INTERVIEW

- 16 제6대 최호영 학장님

FOCUS

- 18 교실 탐방
- 20 문화 탐방

PEOPLE

- 22 발전기금과 동문 소식



최근 국내외 대학들은 스스로의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비전과 사명 그리고 핵심 가치들을 마련하여 구성원의 단합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 발전을 위한 기치를 마련하고자 이전까지의 교육목적 및 목표를 수정 보완 하면서 비전을 '존경받는 글로벌 치과의사 양성'(Global eminence founded on professionalism and respect in oral health and science)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경희대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로서 Global Eminence를 치의학 분야에서 치과의사로서 전문직업성에 대한 확고한 역량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환자와의 상호간에 존경을 기반으로 국제적 위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가치(Core values)로서 Humanism(인본주의), Esthetic(개성과 조화), Leadership(지도력), Progressive spirit(진취성), Excellence(우수성), Responsibility(책임감), Stewardship(봉사정신) 등의 7개의 핵심 가치를 선정하고 각각의 첫 글자를 따서 HELPERS라는 로고로 완성하였다. HELPERS는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학생들의 치과의사로서의 성장 발전만을 위한 가치가 아니라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동문 나아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우리의 전통으로서 가꾸어 가야 할 문화이기도 하다. 우리의 힘찬 도약을 위해 "Let's go Global HELPERS!"

교육목적 우수한 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치과 임상 및 치의학 연구자를 배출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치의학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목표**
1. 치의학 제반 질환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지식과 슬기를 습득한다.
 2. 시대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평생학습태도를 기른다.
 3. 환자와 사회에 대한 치과의사로서 책임감과 윤리관, 인간성을 함양한다.



대학의 사회적 책무는 교육·연구·봉사

명문대학을 위해 구성원의 지혜를 얻고 주위환경을 활용하는 노력 필요



치의학전문대학원 박준봉 원장

HELPERS 3호로 우리 대학의 책무를 생각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교육, 연구 그리고 봉사의 3기능이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명완수를 위해 급변의 개혁보다 신속한 개선을 택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분야는 치의학교육인정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인이 설립한 최초의 치과대학에 걸맞은 교육여건이 확인되었고, 최근 학생들을 향한 교수님들의 기초학문과 임상실습지도에 대한 열정이 두드러져 우수한 인재양성의 장이 되었습니다.

둘째 연구분야는 교수님들의 탁월한 연구능력 덕분에 최근 수년동안 괄목할 만한 업적을 얻었습니다. 특히 금년 정부의 기초과학연구센터(MRC) 사업을 수주함에 따라 향후 7년동안 국비 69억과 대학 대응자금 및 지원금으로 총규모 125억이 연구에 투입하게 되어 명실 공히 대학위상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셋째 봉사분야는 두 개의 병원에서 교수님들의 최고수준의 의료기술은 물론 특별강연들을 통한 한국치과계의 선도역할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학술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신입생은 강의에 앞서 기초 봉사활동을 경험하고, 재학생들과 동문들은 국내외에서 의료봉사를 통해 Global Services를 직접 체험하여 대학에서 추구하는 인간 사랑의 전통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부터 교육체제 변환을 앞두고 새로운 대학문화를 형성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로의 환원이 아니라 더 높은 대학의 위상을 높여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국제적 인정평가기관의 인증도 획득하도록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 세계는 명문대학을 존경하고 신뢰합니다. 대학을 인정한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우리 대학을 졸업한 동문들을 신뢰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명문대학 지향을 위해 구성원들의 지혜를 얻고 주위환경을 활용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래사회를 선도할 대학이 되기 위해 교내 구성원과 동문들 그리고 학부형까지 모든 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2012년 8월
 치과대학장 겸 치의학전문대학원장 박준봉

치전원, 69억 연구비 지원받는 MRC 사업 선정

손상된 치아·치주조직 재생을 위한 새 치료법과 신약 개발 가능성 열려
의·치·한의학 3개 대학의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선정은 국내 최초



MRC 선정 참여 기업체 초청 만찬.



김은철 교수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아와 치주조직재생연구센터(센터장 김은철 교수)가 2012년도 기초의과학연구센터(Medical Science & Engineering Research Center, MRC)에 9월 1일 선정되었다.

7년간 정부연구비 약 69억 포함 총 124억 2천만원을 지원 치아와 치주조직재생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Tooth and Periodontal Regeneration)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기초의과학연구센터로 선정되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7년간 정부연구비 약 69억 포함하여 총 124억 2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MRC는 의·치·한의대의 기초의학교실을 중심으로 기초의과학 부문 거점연구조직을 육성함으로써 생명공학에 활용 가능한 지식과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치아와 치주조직재생연구센터는 지난 4월 2012년도 선도연구센터 사업에 신청했으며, 두 차례의 심사를 통과하여 연구자

의 우수성과 연구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는 3개의 한의대와 4개의 치과대학을 포함한 7개 학교 중에서 선정된 것이다.

조인원 총장, 탁월한 학술기관 위한 지속적 노력 당부

지난 9월 11일에 '치전원 MRC 선정'과 관련하여 총장 격려 자리에서 조인원 총장은 "이번 MRC 사업 선정은 대규모 지원을 받게 된 것보다 치전원 연구역량이 강화된 데 의의가 있다"면서 대학 본연의 역할인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치전원 구성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단과대학(원)에서 탁월한 교수를 지속적으로 초빙하고, 대학본부도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한다면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63년 동안의 경희의 역사를 소중히 가꾸면서 교육과 연구의 미래를 여는 탁월한 학술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함께 고민하고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치아와 치주조직 재생연구센터는 센터장인 김은철 교수와 이진용, 박용덕, 권일근, 이상천, 황유식, 이수정, 김정목, 배호

재, 노대현 교수 등 총 10명의 교수들이 핵심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원 50명과 7개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기초 연구에서부터 임상과 기초를 아우르는 실제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치아와 치주조직 재생연구센터, 임상과 기초를 아우르는 연구 치아와치주조직재생연구센터는 MRC 사업을 통해 치아·치주조직 재생을 위한 통합 연구, 즉 치아와 잇몸·잇몸뼈(치조골) 등 치주조직이 손상되는 원인과 과정을 파악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치아와 치주조직 재생연구센터는 MRC사업을 통해 치아와 치주조직 재생을 위한 통합연구 즉, 치아와 잇몸, 치조골 등 치주조직이 손상되는 원인과 과정을 파악하여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손상된 치아나 치주는 다시 회복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없었다. 본 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치아와 치주조직의 손상과 면역기전을 밝혀내 손상차단과 재생 촉진 제어 표적 분자를 발굴, 재생 및 신약 후보물질 개발의 길을 개척할 계획이다.

연구는 1총괄과 2총괄, 2개의 트랙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총괄(대표 : 김은철 교수)은 치아와 치주질환의 병태생리기전 규명과 선도물질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2총괄 (대표: 김정목 교수)은 치계줄기세포의 신호전달 기전 및 나노융합생체 소재 개발 연구를 한다. 한쪽에서는 발병 원인을 밝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줄기세포, 나노소재, 생체고분자등을 활용해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법을 찾아낸다.

센터장인 김은철 교수는 "치의학 분야의 핵심 연구 분야인 치아와 치주조직 손상과 재생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어 기술 개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기초 치의과학자 양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철 교수,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기초 치의과학자 양성

김은철 교수는 1988년 원광대 치과대학을 수석 졸업후 1996년부터 원광대 치과대학에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무부학장, 학생부학장, 대학원 주임교수 및 치의학연구소장을 역임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전문위원 및 한국학술진흥재단 전문위원을 수행한 경력을 가지고 2011년 4월 경희대학교에 임용되었다.

김은철 교수는 현재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연구부 대학원장과 구강생물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2006년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 학술상, 2007년 대한치학회 연세학술상 금상, 2010년 대한치학회 연세학술상 대상, 2010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국내외에서 연구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치아와 치주조직 재생 및 손상에 관련된 다수의 국가연구비(최근 5년간 종료 연구비 총액 14억)를 수행한 경력이 있고, 최근 5년간 SCI 국제논문 82편 (IF합 202.8)을 발표하였다.

현재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 총무이사과 대한 기초치의학 협의회 총무이사, 한국연구재단 의약학단 전문위원으로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어 앞으로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2012년 1학기 외래교원 위촉

2012학년도 1학기 외래교수 23명을 신규 위촉했다. 원내생에 대한 강의와 임상 실습지도 및 본원의 대외 위상 제고를 위한 외래교원으로 위촉기간은 2012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이다.

2012년 승진 교원

- 치과보철학교실 : 이석원 부교수
- 치주과학교실 : 강경리 조교수
- 영상치의학교실 : 김규태 조교수
- 악안면생체공학교실 : 허정선 조교수

2012년 1학기 학생진로 상담

2012년 1학기 학생진로 상담이 2012년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되었다.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309명 중 270명(87%)에 대한 진로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행정실에서는 원활한 진로 상담을 위한 예산지원을 하였다.

일본 오우대학 교수 및 학생 방문



2012년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일본 자매대학인 오우 치과대학의 Shinya Yamazaki 교수와 Rina Hakozaki, Azusa Kittaka, Rina Sato, Keiko Yamashita, Shota Abe, Masakazu Oka 학생 6명이 본원을 방문했다.

이 기간 동안 본교 및 치과병원을 돌아보고 세미나에 참가하는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하였으며, 또한 본원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한 양교 간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2012~2030 발전계획서 작성

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12~2030 발전계획서를 수립하였다.

이번 치의학전문대학원의 발전계획서는 '사회 및 의료봉사 실천, 역량을 갖춘 인력양성 및 배출, 연구역량이 높은 대학,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교수진, 출신동문의 사회명성 획득'이라는 사회의 요구와 '봉사프로그램의 체계화된 조직, 역량중심의 교육 과정 운영과 평가, 우수한 전일제 대학원생 확보, 분야별 우수 교원의 인센티브 확대, 동문의 학교참여 기획 확대'라는 핵심 역량 분석을 통하여 작성되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1. 환자와 사회에 대한 치과 의사의 책임감과 윤리성, 그리고 인간성을 실천한다.
2. 치의학교육의 국제화인증(CoDA)을 통한 탁월한 임상수행 능력을 갖춘 치과 의사를 양성한다.
3. 교수 1인당 2명 정도의 전일제대학원생을 유치하여 연구 인적 인프라를 구축한다.
4. 주요 연구 분야별 기본 실험 및 연구 분석 시설과 설비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존경받는 글로벌 치과 의사 양성'이라는 우리 치의학전문대학원의 비전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학부모 초청 간담회



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12년 5월 11일 금요일에 본교 재학생 학부모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재학생 학부모에 대한 학교 현황을 설명했다.

학교 현황에 대한 공유를 통한 학부모와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재학생과 학부모 100명, 치전원 보직 교수, 각 학년 담임교수 부담임교수, 학생회 도우미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교수회의실에서 박준봉 대학원장이 본원의 현황과 비전을 발표하였고, 경희역사박물관 직원의 설명을 더한 교내투어를 통해 애교심을 함양하였으며 치의학관 1층 로비에서는 만찬과 함께 학생동아리들의 발표회를 가졌다.

동대문구 관내 청소년 대상 치과 의사 체험 프로그램



2012년 7월 28일 토요일에 동대문구 보건소 의약과의 요청으로 경희여자고등학교 1학년 이시영 외 19명 등 동대문구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치과병원과 더불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현황 소개 및 소식지, 안내자료 배부하였고 치의학관 지하 2층 강의실, 지하 실습실(임상전단계실습실/진료 B303, 기초실습실 B306, 임상전단계실습실/기공 B403)을 견학하고 신홍플라자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며 끝을 맺었다.

고향치전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의 축제인 고향치전이 2012년 9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청운관 앞 마당, 대운동장, 노천극장 등 교내에서 열렸다.

이번 고향치전은 전통적인 행사인 체육행사, 화합의 장도 열렸지만, 지난 2010년도부터 지속되어온 교내 재학생, 교직원 지역 주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무료 구강검진 사업도 함께 전개되었다.

9월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3일간 청운관 앞마당에서 치러진 무료구강검진 사업에서는 구강검진, 불소도포와 함께 올바른 칫솔질 안내 등을 통하여 경희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봉사하였다.

치의학전문대학원 원내생 종합진료실의 원활한 환자 수급에도 한 축을 담당하였다.

학생회측은 내년에도 사업을 전개하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더 많은 교내외 구성원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계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무료구강검진사업



치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76명은 2012년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7회에 걸쳐 서울 시립 은평의 마을,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성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489명에 대한 무료구강검진 사업을 전개했다. 이번 무료구강검진 사업은 2011년 12월 22일에 본대학원과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간에 체결된 MOU에 따른 후속 사업으로 Lux Humanitas 정신을 계승하고 치전원생의 인성교육 및 재능 기부를 위해 마련되었다.

2012학년도 상반기 전체 교수 워크샵



2012학년도 상반기 전체 교수 워크샵이 2012년 8월 25일(토)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박준봉 대학원장, 보직교수 및 전임교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워크샵에서는 '고난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김광호 콤비마케팅 김광호 연구원의 특강과 김은철 연구부대학원장의 MRC 소개, 방재범 객원교수의 CoDA 인증 소개, 박영국 교무부대학원장의 치전원 현황 소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치과교정학 교실

- 2012년 3월 23일 경희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정학 교실과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오사카 치과대학 교정학 교실간의 조인트컨퍼런스가 경희의료원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 2012년 3월 27일 김성훈 교수가 경희대학교 부속 치과병원 치과교정과 과장으로 취임했다.
- 2012년 5월 4~8일 박영국·김성훈 교수, 양동민·최은경·노민기 선생은 하와이에서 열린 112회 미국교정학회연례학술대회에 참석했다. 박영국 교수는 'Patient-friendly orthodontics to accelerate tooth movement'를 주제로 강연했다.
- 2012년 6월 14~16일 제2회 KIFOC 해외연수회인 'Kyung Hee Speedy Surgical Orthodontics Course'가 경희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연송홀과 치과병원 Implant center에서 개최됐다.

영상치의학 교실(구강악안면방사선학 교실)

- 2012년 3월 2일 최용석 교수가 치과대학 학과장에 취임했다.
- 2012년 3월 17일 황희환 교수가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 2012년 3월 17일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용석 교수가 '악안면 영역에 발생한 거대 골내병소-남아프리카공화국 증례'를 주제로 특별강연했다.
- 2012년 4월 13~15일 일본의학방사선학회 총회에 김규태 교수가 참석했다.

치주과학 교실

- 2012년 3월 10일 카톨릭대 성의회관에서 열린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전 의국원이 참가했다.
- 2012년 4월 22일 Seoul Implant Symposium 2012에서 허익 교수가 'How much do you know about peri-implant diseases and appropriate treatment methods?' 주제로 강연했다.
- 2012년 6월 9~10일 The 7th Annual Meeting of chinese Geriatric Dentistry & Asian Academic Conference of Geriatric Dentistry에 박준봉·강경리 교수, 조승희 선생이 참석했으며, 박준봉 교수가 'The strategic plan of the Korean Academy of Geriatric Dentistry for Future'를 주제로 초청특강했다.
- 2012년 6월 20~22일 브라질 Iguacu Falls에서 개최한 IADR General Session에 허익 교수, 남은희·문복희 선생이 참가했다.

안면통증·구강내과학 교실

- 2012년 3월 17일 안면통증·구강내과 춘계학술대회를 경희대에서 개최했다.
- 2012년 6월 7일 KBS '여유만만'에서 홍정표 교수가 입병에 대해 상담했다.
- 2012년 6월 30일 대전 원광대치과병원에서 열린 구강내과 1차 전공의교육에서 전양현 교수가 강연했다.
- 2012년 8월 18일 SBS '8시 뉴스'에서 전양현 교수가 이갈이에 대한 상담했다.

치과보존학 교실

- 2012년 3월 8일 개강식 및 김덕수 교수 임용 축하연이 역삼역 제우스스타에서 있었다.
- 2012년 3월 24~25일 근관치료학회가 SETEC에서 있었다.(정현숙/조성근 선생, 김건령/이지혜 선생 포스터 발표)
- 2012년 5월 11~12일 대한치과보존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원광대에서 있었다.(김건령 선생 구연 발표 및 우수상 수상)

치과보철학 교실

- 2012년 4월 1일 이성복 교수가 경희시대 치전원 보철학교실 제2대 주임교수로 취임했다.
- 2012년 4월 21~22일 세종대 광개토태왕홀에서 열린 대한치과보철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했다.
- 2012년 6월 15~25일 이성복·안수진 교수가 브라질에서 열린 '제90차 국제치과연구학회(IADR) 세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했다. IADR 임플란트연구분과 총회에서 이성복 교수가 8년 임기 본부이사에 선출됐다.
- 2012년 6월 19일 경희대 치과병원 지하강당에서 권궁록 교수의 주관하에 틀니 관리법 강의 및 구강상담을 진행했다.

구강악안면외과학 교실

- 2012년 3월 2~4일 이백수 교수가 Kyung Hee Advance Course For Bone Management 연수회를 개최했다.
- 2012년 4월 26~28일 제53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종합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해 연계를 발표했다.
- 2012년 5월 26일 인제대 해운대 백병원에서 열린 대한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춘계워크숍에 참석했다.

소아치과학 교실

- 2012년 4월 21일 장애인치과 춘계학회에 참석했다.
- 2012년 4월 28~29일 소아치과 춘계학회에 참석했다.
- 2012년 5월 10~13일 일본 소아치과학회에 최성철 교수, 정용석·이영은·이연주 선생이 참석했다.

구강생화학·분자생물학 교실

- 교실 동정
 - 2012년 3월 김정목 조교수가 신입교수로 부임했다.
 - 김정희교수가 구강생물학회 홍보이사로 위촉 활동하게 됐다.
- 연구비
 -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Cross-talk between cellular energy-sensing AMPK/mTOR signal pathways and autophagy' 및 8월 MRC 연구과제에 선정됐다.

예방/사회치과학 교실

- 교실 동정
 - 박용덕 교수는 2012년 8월 해외연수 귀국후 2학기 복직 및 대한예방치과학회 부회장 피선(2012. 4~2015. 2)
- 대외활동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미래위원 연장활동-치계대표
 - 국회: 구강보건법 개정안 입법 발의(김영환의원, 공청회 발제),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법 제정작업(정의화의의원 공동발의)
 - 식약청: 중앙약사심의위원(제16차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위원)
- 논문발표
 - 박용덕 교수는 (BDJ, 2012)의 SCI 4편 외 국내논문(학진등재) 4편을 발표했다.
- 연구비
 - 2012년 아모레퍼시픽 '치간배천법으로 활용되는 치술의 임상효과' 애경 '죽염이 배합된 양치액의 실험실적 효과연구'등 신규공동연구 진행계약체결로 연구비 8천만원을 수주하였다.

악안면조직재생학(생리학 교실)

- 교실 동정
 - 2012년 3월 신입교수 발령: 이수정(조교수 A), 노대현(조교수 B)
- 연구활동
 - MRC 연구사업 '치아와 치주조직재생연구'에 1총괄 2세부과

제를 수행할 예정(이수정 노대현 교수)

- 논문발표
 - 노대현 교수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IF=4.774) 국제 SCIE 논문 발표 (2012년 8월 27일 게재)

악안면조직재생학(병리학 교실)

- 대외활동
 - 김은철교수가 한국연구재단 의약학단의 RB(전문위원)로 선정됐고, 대한 기초치의학 협의회 총무이사로 선정됐다.
- 논문발표
 - 김은철교수는 (J Dent Res)의 국제 SCI 4편을 발표했다.
- 연구비
 - 2012년 9월 선도연구센터사업인 MRC '치아와 치주조직재생연구센터' 사업에 선정되어 7년간 국가연구비 69억, 참여기업 지원 43억 4천만원 총 112억 4천만원의 연구비를 수주했다.

치과악리및독성학 교실

- 논문발표
 - Cell Signal 의 국제 SCI 논문 3편을 발표하였다.
- 연구비
 - 한국연구재단 일반연구 선천성면역계에서 'TMEM126A의 CD137L(4-1BBL) 역신호 전달내 역할연구'로 166,878천원의 연구비를 수주했다.

악안면생체공학 교실

- 교실 동정
 - 2012년 3월 배호재 조교수가 신입교수로 부임하였다.
- 논문발표
 - Biomaterials 의 국제 SCI 20여 편과 SCIE 2편을 발표하였다.
- 저서
 - 제목: Photocurable Hydrogel for Tissue Regeneration in Handbook of Intelligent Scaffolds for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저자: 권일근, 배민수, 발행처명: Pan Stanford Publishing)
- 연구비
 - 한국연구재단 MRC과제 '나노융합 생체소재 기반 치아와 치주조직 재생 연구' 등 총 8개의 연구과제에서 총 9억 7천만원의 연구비를 수주했다.

미술부 - 흠



미술부에는 44기 8명이 신입부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방학 중에는 일주일간의 집중 작품 활동 시간을 갖고, 올 겨울에 있을 정기전시회를 대비하여 작품 활동에 전념하였으며, 대성리에서 가진 엠티를 통해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단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진료봉사동아리 의료연구회



의료연구회에서는 지난 8월 여름 장기 진료 봉사를 대비하여 경희의료원 치주과 박정수 선생에게서 스케일링 실습 교육을 받았다. 8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경기도 연천군 도신리로 여름 장기 진료 활동을 가졌다. 또한 4월과 8월에는 정기 총회를 가져 권공록 지도 교수와 졸업하신 선배들과 함께 지난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구부 KHDS



축구부는 6월 29일부터 2박 3일의 일정

으로 충북 음성으로 첫 전지훈련을 치렀다. 재학생들의 많은 참여로 기량 향상과 더불어 동아리원들 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축구부 첫 전지훈련이었는데 앞으로 일정을 더 늘려서 매년 전지훈련을 갈 예정이다. 축구부 파이팅!!

통기타동아리 애아라시



지난 5월 25일 따뜻한 봄날 "99테시벨"에서 봄 공연을 가졌다. 바쁜 일정 속에서 빠듯하지만 즐겁게 준비했고, 또한, 2학년 김지환 학우의 프로포즈 날이기도 했다.

라이브카페의 분위기와 잘 어울렸던 자작곡이 아주 멋있었다. 여름 방학 중 7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양평으로 뮤직 캠프를 가졌고, 1학년 학우들에게는 기타 실력이 조금 더 느는 기회가 되었다.

진료봉사동아리 KODA



KODA는 8월 2~6일 동안 여주 대신농협으로 여름 장기진료를 다녀왔습니다. 장진 이튿날에는 KODA 지도교수인 박준봉 대학원장이 직접 지도치과의사로 참여하였다.

빠듯한 수업시간에는 듣기 힘든 인생 이야기와 함께, 보다 환자 중심의 진료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다.

야구부 텐탈 에이스



야구부는 4월 44기 신입생 15명을 위한 신입생 환영회와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4월 28일에는 전치제에 출전하였다. 5월에는 4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경희대학교 최대 체육대회 고향집에 출전해 총 11팀 중 4위를 하였다. 방학 중 7월 12~15일 3박 4일간 춘천 강원대 야구장에서 여름 전지훈련을 진행했다. 개강 후 9월까지 3월부터 토요일마다 청량중학교에서 진행 중인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할 것이다.

진료봉사동아리 WBM



방학 중 졸업하신 선배들을 방문하고, 8월 9~12일 경기도 포천 관인 농협에서 장기진료를 하였다. 24기 이정우, 36기 유은규, 이현중, 40기 장정훈 선배가 지도치과의사로 참여해 큰 도움을 주었다. 이번 여름 13년째 인연을 이어오는 관인 주민분들의 환대 속에 뜻 깊은 시간이었다.

테니스 동아리 Y.D.T.C.



7월 1~7일 6박 7일 간 대전으로 여름전

지훈련 후 1박 2일 간 엠티를 가졌다. 20여명 정도의 선배들과 함께 테니스를 치고 재밌는 뒤풀이 시간도 가지며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돌아왔습니다. 8월 3~4일에는 전국치과대학테니스대회에 참가하였다. 만족스러운 성적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신입생들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기독교 동아리 모퉁이들



모퉁이들은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8월 1일부터 일주일동안 필리핀 민다나오섬 쟈산 지역으로 비전 트립을 가졌다. 치과의료선교회 치과의사 3명, 치기공사 선교회 기공사 7명, 모퉁이들 7명 등 36명으로 구성된 우리 팀은, 의치 32악 제작을 포함해서 총 373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의 행복한 미소 덕분에 행복했던 비전 트립이었다.

배구부 NET



경희 치전원 배구부 NET은 서울대 치전원 배구부와 교류전을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5월에는 전치제에 참가하여 4강전을 치렀으며, 6월에는 강남구민체육관에서 OB/YB전을 성공리에 마쳤다. 방학 중에는 전지훈련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오케스트라 동아리 D.O.



D.O.는 9월 3일, 경희대학교 크라운관에서 제 2회 정기연주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방학 내내 연습한 보람이 있는 자리였고, 1회 연주회 때보다 더 성황리에 공연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정기연주회를 위해서 8월 30~31일에는 뮤직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2부 첫 공연으로 16기 최권석 선배와 재학생이 함께 베토벤 트리오를 연주함으로써 훈훈한 D.O. OB, YB 무대를 만들었다.

산악부



산악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1박 2일간 방학 야영을 무사히 마쳤다. 방학 기간 중에 잡힌 일정이었지만 흥정표 지도교수와 많은 부원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야영지에 구축한 숙영지에서 가진, 저녁 만찬 자리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다이버



다이버는 2012년 8월 24~27일까지 권일

근 교수, 박재홍 교수와 함께 제주도 원정을 가졌다. 태풍 블라넬이 서귀포 남단부 400km 상에 있을 때 폭풍전주를 느끼며, 다이버답게 거친 파도를 즐기고 돌아왔습니다.

진료학술봉사동아리 CDSA



CDSA는 지도치과의사로 구강외과 임지민, 주용진 선생이 참가한 가운데, 7월 25~28일에 걸쳐 경기도 포천시 일동 농협에서 약 170여분의 환자분들에게 치과 진료와 구강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진료를 끝낸 저녁에는 보철과 백장현 선생을 비롯한 많은 OB 선배들이 방문하여 선배간의 돈독한 정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3학년들의 첫 발치를 축하하는 집도식과 이번 진료를 끝으로 본격적인 국시준비에 들어가는 4학년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행사도 가졌다.

사진부 DAPO



DAPO는 올해 여름방학에 경희의료원과 강동 경희대병원 1층 로비 양측에서 전시회를 하였다. 이전까지는 흑백사진을 많이 전시하였으나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시하는 점을 감안하여 컬러사진 비중을 높였더니 반응이 좋았다. 9월에는 교내전시회도 준비 중이다.

미국 에모리대학 두경부외과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2011년 7월 17일 미국 애틀란타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다소 늦은 나이에 1년 간의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설렘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더 앞서는 기분이었다.

연수전에 우선 해외연수지를 선정하고, 연수에 따르는 이사 준비와 미국 정착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며 나름대로 해외연수 1년간 해야 할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목표를 정했다. 그런 후에 미국에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에모리대학 두경부외과를 연수지로 연수지는 미국 동남부에 위치한 애틀란타에 있는 에모리대학 두경부외과(Head and Neck Surgery)이다.

미국의 두경부외과는 이비인후과의 한 파트로서 두경부에 발생하는 종양이나 악안면장애 등을 주로 치료하고 있다.

미국에서 두경부 종양 수술은 주로

이 두경부외과에서 시행되고 있다. 구강악안면외과에서는 구강암 수술이 활성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두경부외과에서 종양치료에 대한 수술 및 치료경향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연수지를 이곳으로 정하게 되었다.

연수지에서의 정착 절차

애틀란타에는 누나를 비롯해 친척이 많이 살고 있어 초기 정착과정은 해외연수를 다녀온 대부분의 다른 교수님들이 한 고생에 비하면 비교적 순조로운 편이었다.

하지만 현지인들과의 영어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미국사회의 이방인에 대한 이질감과 동양인을 바라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등으로 말로만 듣던 타국에서 정착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

살 집을 얻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운전면허를 따고, 집안의 살림도구를 장

만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 등 이러한 과정들이 생각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매번 두세 번이상 시도해야 한 가지가 해결되었다. 미국에 간지 거의 2달 이상의 기간이 이런 일들로 시간이 소요된 것 같다.

병원생활의 에피소드

에모리대학에서의 병원생활도 시작되어 미국생활 초기에는 정말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갔다. 그로 인해 나름대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병원생활은 주로 수술방에서 지내면서 다양한 환자들의 수술을 참관하였다. 연수전 수술방에서 어시스트를 하면서 수술을 경험하려 하였으나 미국의 의료계의 분위기가 미국면허 미소지자는 수술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다소 허락하는 곳이 있기도 했으나 내가 거주하는 애틀란타 지역은 다소 보수적인 성향의 남

부사회로 수술 참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또한 수술진행시 사진촬영이나 비디오 촬영 등도 항상 허락을 받고 해야만 했다. 나름대로 많은 사진자료와 비디오 촬영을 통해 수술기록을 많이 남기려 하였으나 수술방 간호사들의 감시 아닌 감시로 인해 다소 어렵기도 했다. 수술방에서 하루종일 서있으면서 예전 인턴시절에 경험했던 일들이 새록새록 추억이 되어 기억나기도 했다.

화요일에는 Tumor border라는 컨퍼런스가 새벽 6시 30분에 시작되었는데 여기에 참가하였다. 두경부 종양과 관련된 방사선과, 종양내과, 병리과, 구강악안면외과,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합동으로 진행되는 컨퍼런스로 이비인후과 의사가 환자들에 대한 질환이나 증후를 설명한 후 여러 다른과 의사들과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을 하여 최종 치료결정을 하는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구강암을 비롯한 두경부암 환자의 다양한 증례를 경험하지 못한 나에게 에모리대학에서의 1년 간의 연수는 수술방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한 수

술방법 등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영어를 좀더 잘 헤이곳에 있는 의사들과 다양한 의견 교환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다.

아이들과 함께한 미국 여행

이러한 연수생활 외에도 이번 연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미국문화를 접하게 해주고 싶었던 목적도 있었다. 가능하다면 많은 여행을 함께 하려고 했다.

하지만 연수 기간 중에도 시간이 넉넉지 않아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단거리 여행을 하였다.

그리고 에모리대학의 병원생활이 끝나는 시점에 아이들과 미국 동부와 서부를 여행할 계획을 세웠다.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예전부터 자동차를 가지고 대륙횡단을 하는 여행 얘기를 많이 들은터라 큰 맘 먹고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다.

우선 동부부터 출발. 차에 먹을 것들 가득 싣고 여행을 시작했다. 워싱턴, 보스턴, 뉴욕, 나이아가라폭포 등을 경유하여 미국의 대도시와 자연경관을 경험하였다.

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서

부로 출발하여 라스베가스, 그랜드캐년, LA, 샌프란시스코, 요세미티 국립공원, 엘로운스톤, 리쉬모어 마운틴 등을 경유하는 장기간의 여행을 하였다. 말로만 듣던 미대륙의 광활함과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 초원의 장엄함 그리고 자연이란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했던 정말 소중한 여행이었다. '인생에서 다시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추억'을 만든 것 같았고 '아이들에게도 값진 추억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연수를 마치며

이렇게 1년 간의 미국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미국에서의 지난 1년의 생활을 다시 돌이켜 보았다. 출발 전 가졌던 걱정과 근심 그리고 두려웠던 그때가 다시 떠올랐다. '그때는 왜 그렇게 걱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것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즐겼던 너무나 좋았던 시간이었던 같다.

앞으로 한국에 가면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 미국에 오리라' 하는 다짐을 하며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글 · 사진 구강악안면외과 지유진



미국 에모리 대학병원 앞에서 찍은 기념 사진(왼쪽), 가족과 함께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오른쪽)

연구년을 다녀와서



박용덕 교수

모처럼 교육현장을 떠나 지난 1년간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 시간을 얻게 되었다. 1년의 연구년 대장정길에서 골프 신동 되기와 영어회화 완벽 구사하기, 그리고 국제저널 글 1편 쓰기 이렇게 딱 3가지를 목표로 비행기에 올랐다.

미국 국립암센터에 자리 잡아

이 3가지 목표를 위해 미국 국립보건원(NIH) 내에 국립암센터(NCI)에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다. 오래된 아파트 투룸을 월 2,000불에 계약했다.

암센터 연구원에게는 연구비가 지급되었다. 초청자인 Breide 교수가 약속한 연구비가 지급됐고, 그 연구비는 집 렌탈비로 대체됐다.

집 렌탈비가 대체된 것을 확인한 후

가족을 초청하게 되었다. 그동안 예비 방문을 통해 미동부 워싱턴DC의 외곽인 Mclean에 거주 공간을 정하고, 딸들을 포함해 4인 가족의 이사를 감행한 것이다.

용감하고도 무모한 도전

결론적으로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무척이나 용감하고 진취적인 한국인의 도전 정신이 아니었나 싶다. 미국 도착 전에 비자와 보험 문제를 출국 시간에 맞추어 힘겹게 처리하고,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필수적인 자동차 구입을 했다. 이것이 미국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타국의 지리에 무지한 이방인에게 대중 교통이 주는 답답함을 극복해야 했고, 그 드넓은 미국 땅에서 두 발과도 같은 자동차는 한국에서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소통과는 비교가 안되는 필수품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내 차를 운전하기까지

한국인의 빨리 빨리 장인정신을 발휘해서, 렌탈 카 1주차에 미국 운전면허시험에 도전했다. 그리고 면허시험에 통과한 후 잉크도 안마른 가면허증을 들고 대형 중고 자동차 매장인 카맥스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렇게 빨리 달려갔지만 도착해서는 시간 개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요 직원 녀석 때문에 도 닦는 심정으로 하루 동안 기다림을 테스트 받아야 했다. 한시라도 내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었다.

아직 렌탈기간이 남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두 대의 자동차를 끌고 다닐 생각을 했다. 피서용 자동차로도 활용하고 싶은 마음으로 꽤나 마음이 다급했었다.

그러나 수차례를 확인하고, 마음에 정해둔 자동차를 구입하는 단계에서 좌절이 계속 되었다. 미국인들의 여유

인지…… 아니면 동양인을 알보는 것인지…… 물건을 팔고 싶지 않은 것인지…… 온통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을 테스트하려는 것이었는지…… 자동차 상담부터 구입까지 무려 하루종일의 시간을 소비하면서 별의별 소소한 대화를 직원과 나누면서 결국 친한 친구가 되었다.

미국에서 사귀 첫 친구

처음엔 혼자서 주절거리며 자동차 매매와 전혀 관계없는 질문을 던지지를 않나, 글자 한자를 쓰고 나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내 자동차 구매에 관련된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에 결국 자신의 애인이 부산 사람이라는 사실과 한국에도 1년에 한 번씩은 다녀온다는 사적인 얘기에 이르러 드디어 친구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 하~ 하~

자동차 매입 후 핸드폰 개통, 집기 등 생활도구 준비, 인터넷 신청과 TV 연결하기를 거치면서 아이들 학교 전학까지 이르러서…… 그나마 집 임대단계에서

미국인의 보증이 끼면서 얼마나 편리했는지를 생각하면, Breide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1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한다.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기

연구실에서의 생활들…… 끊임없는 아침 인사와 주간 미팅, 특히, 주간미팅에서 발표를 할 때 저만치 가버린 생각을 뒤따라 붙은 얼토당토 않는 콩글리쉬를 기억할 때, 부끄러움도 이제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지고 있다.

적어도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되지 말자던 내면의 약속을 수많은 나라에서 날라 온 석학들의 연구활동 속에서 부끄러움으로 지켜내며, 나는 다만 한 점에 불과한 우물 안의 개구리, 상자에 가두어진 벼룩이 될 수밖에 없었다.

성과에 급급해서 발버둥 쳤던 나의 총 연구기간 속에서 얼마나 창의적이고 다양한 생각을 가졌는지, 연구를 위해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주는지, 경험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무수히 많지만 지면상 생략하고, 언젠가 내 자신의 평전을 위해 아껴두고자



2010년에 착공한 미국 국립암센터(National Cancer Institute) 연구동

한다.

귀국 무렵 가족회의를 거쳐 결국 1년간의 기러기가 되어버렸다. 선배 교수님의 말씀처럼 출국 전에 미리 아이들과 집사람에게 도장이라도 받아둘 걸…… 아니면 내가 가족회의 때 좀 더 강하게 의견을 제시해서 데려올 걸…… 지금은 이미 늦어버린 결론이다.

한국에서 나라도 건강히 살아 가보자. 나는 잘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담고 귀국 비행기편에서 1년을 회상했다. 아! 길고도 너무나 짧은 지난 1년간 난 무엇을 했던가?

아니지. 무엇을 하다 중단했던가? 출국 때 맹세했던 3가지 중 골프? 회화? 연구? 뿐만아니라 내 가족생활까지도 모두 마음뿐…… 언고자 했던 목표는 먼 인생의 과제로 남겨두고 언젠가 다시 도전해야 할 미지수가 되었다.

소중하고도 귀한 경험

지천명에 다가서면서 헤민스님이 말씀처럼 내가 하는 행동이 모두 남을 위한다고 하지만, 거리가 나 자신을 위해 행동하고 있음을 문득 깨달았다.

내가 하는 공부와 연구가 대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지만, 결국 나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구 반대편의 짧은 생활에서 인정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내 인생에서 이국생활의 다채로움을 얻게 된 경험은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기억할 것이다. 학생들과 더불어 대화할 것이고, 그들에게 드넓은 포부를 갖도록 희망을 전달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갖게 해준 경희대학교에 감사하며, 내가 얻었던 소중한 경험들을 학생 교육과 연구에 담아보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한다. 나 자신을 위해…….

글·사진 예방/사회치과학교실 박용덕

제6대 최호영 학장님 인터뷰



소탈하시고 언제나 마음 편히 대해주시는 최호영 학장님을 학생회 전, 현직 임원들, 박준봉 대학원장님과 함께 만났습니다. 추운 날씨에 만나길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웃는 얼굴로 맞아주시며 이런저런 귀감이 될 좋은 말을 해주신 최호영 학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교에 계시면서, 학장님 하시면서 기억에 남거나 힘들었던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1991년도 12월에 치과병원이 완성되어 이사 간 직후 1992년도 2월에 학장이 되었어요. 최대균 교수는 내일모레 개학인데 보철 주조실습실이 없다고 동분서주하고, 경희대학교 전체 학생들이 등록금거부운동 하는데, 그 주도를 사대와 치대에 서 했지요. 새로운 건물 지어주자마자... 주도한 단대 학장은 큰 일 났지요.

새벽 1시, 2시까지 퇴근도 못하고 '왜 학장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학교 본부에서 눈총도 많이 받았지요. 학생회가 예전엔 무서웠고, 기초교실이 열악했지요. 결국 돈이 문제 아니겠어요. 기계가 들어와도 기사가 없고, 기사 2명 겨우 들어 왔는데, 할 줄 아는게 없었어요.

그래서 발전기금을 얻어야겠다고 마음 먹고, 한 구좌 백만원

씩 동문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돈 걷는 게 쉽지 않았어요. 기업자들은 항상 힘들다고 했지요.

그런데 6기 선생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제자인데 그 당시 엄청난 돈인 10구좌를 보내왔어요. 제주도를 10번도 넘게 갔고, 동문을 만나러 다니면서 매일 고기 먹어서 통퐁 걸려 입원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2억 3천만원 건어서 다음 학장 이상철 학장에게 넘겨 줬지요. 돈 많이 걸어서 다른 단대 학장들한테는 눈총을 엄청 받고 총장님께서는 칭찬 듣기도 했어요. 인천에도 정말 많이 갔어요. 이 자리에서 인천동문회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네요. 이상호, 김학찬 동문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그 당시 거금인 6천 만원을 주셨지요. 서대문구, 은평구에서도 적극적이었고, 학장이 직접 온다고 많이 환영해주었어요. 지금은 감사할 뿐이야.

대학원장님 현재의 신축 치의학관 건립과 동문 발전기금의 초석을 학장님께서 마련해주신 거네요.

학장님께서는 후배 치과의사들이 이것만은 꼭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첫째는, donation. 젊을 때는 열심히 환자 보고 돈 벌어야 하지

요. 만, 천원, 이천원 썩만이라도 기부했으면 좋겠어요. 그 돈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살기 좋도록 해주는 나라가 좋은 나라지요.

한편으로는, 안성의 내가 가는 복지회관에 가면 밥을 '거저'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거저' 문화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밥을 먹은 만큼은 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라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TV프로그램 중 '사랑의 리퀘스트'라고 있어요. 매주 2통화씩 전화를 해요. 그럼, 토요일마다 3천 원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추천캠페인 중입니다.

둘째는, 앞으로도 계속 공부해야 해요. 요즘은 주말에 여러 가지 보수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수련 받지 않아도 공부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가 중요한 것 아니고 다른 직업은 40대면 정년 고민해야 하는데, 우리는 65세 정년까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요. 제 친구들 지금도 개업하고 있어요.

학장님께서 화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화 낼 일이 있으신지요?

왜 화를 내요. 화 낼 일이 뭐 있어요? 누구에게도 기대하질 않으니 불만이 없고, 화낼 일이 없어요. 당연히 나 자신한테는 불만이 많지요. 대신에 한 번 틀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런 사람이 평생 2번 있었어요. 교수 중 1명, 가족 중 1명. 환자 볼 때는 2번 정도 애먹은 적 있어요. CI, V 와동을 레진으로 했는데, 여행 다녀와 보니 엔도를 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미 죽은 걸 건드린 것 같아요. 그 환자는 난동 부리는 것도 아니고 나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조용히 과장방에 찾아 오고요. 그 때 머리가 다 빠졌어요. 환자 볼 때는 항상 긴장해야 해요. 또, 환자를 한 번 웃겨보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대학원장님 그럼 50대 넘는 교수, 치과의사들 앞으로 '이걸 준비해라' '이걸 고쳐라' 하시고 싶은 것이 있나요?

최호영 학장님 그 나이에 절대 못 고쳐요. (웃음~)

학장님은 에너지가 넘치시는데, 건강 유지 비결이 있으신가요?

일주일에 2번 이상 집에서 가까운 구룡산, 대모산 같은 산에 다녀요. 또 걷기 여행을 자주 가요. 하루에 10km를 걸어요. 가려면 주로 사람들 많이 안 가는 곳이 트래킹 코스로 개발되어 버스를 10시간 타고 4시간 걷는데,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전혀 피로하지 않아요.

60세 넘는 사람은 내가 유일할 거예요. 대부분 40~50대에

요. 한 달에 2번 정도 가죠.

또, 금요일마다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아차산 등반하는데 8 커플 중 3쌍은 밥만 먹으로 오지요. 그래도 치과의사는 주말에 트래킹하는 것이 좋아요. 나의 또 다른 취미는 술이에요. 우리집에는 술 떨어지면 큰 일 나죠. 보춘과에서 술 먹으면 첫 잔부터 폭탄주고, 이 나이에도 비틀거리지 않아요.

여가시간은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지요? 여행을 많이 다니고 계시는 것 같은데, 최근 다녀오신 곳 중 추천하시고 싶은 곳이 있으세요?

중동지역 중 레바논, 시리아 등도 동로마 유적이 많아 좋았는데, 가장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는 인도예요. 아잔타, 엘로라 석굴을 지나 북인도로 가는 여행길에 뭍바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후회부터 밀려오는거예요. 60년대 서울역과 같더라고요.

후끈후끈하고 매연에... '아~여기 왜 왔을까?' 인도는 먹고 자는 것은 힘들 것은 없는데, 차에서 내리기만 하면 거지 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가면 갈수록 좋은 곳이에요. 난 자연이나 경치 좋은 곳보다는 문명 등에 더 관심이 많아요. 문화와 문명에 대해 가기 전에도 공부하고 여행 다녀와서도 공부해요. 요즘은 얼마 전 유럽기차여행에 관한 방송을 본 후 거기에 가보고 싶어요. 작년 고등학교 동창생 4명이 독일로 배낭 여행을 다녀왔어요. 맥주, 와인 마시러 내년에 또 가자고 했어요. 독일에서는 아침에 커피 마실 곳을 못 찾았더라고, 모두 맥주집뿐이어서요. (웃음)

지금도 환자를 보시고, 틀니 환자도 보신다고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일주일에 이틀은 환자를 보지요. 내가 하는 일이 크게는 두 가지예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복지회관에서 40명을 뽑아서 격월로 20가구씩 월 100만원 생필품을 공급해 주는데, 그 가정들을 1주일에 2~3가구씩 직접 방문하고 얘기 나누고, 학자금 부족으로 고등학교 중퇴한 학생들 지원도 해주고, 의료보증이 취소된 사람들 복원도 시켜주는 일들 돕고 있어요.

또 한가지는 협회에서 기공료로 사용하라고 1000만원씩 보내주는데 복지회관에서 선정한 환자 대상으로 무료틀니사업을 하고 있어요. 주로 부분틀니 환자인데, 내년엔 30명 정도 할 예정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와 후배들을 걱정하시고 격려해주신 최호영 학장님과 유쾌한 수다를 나누며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

글·사진 배아란 치과보철학교실

강동경희대학교 치과병원



박준봉 교수의 임플란트 시술 치료.

치과병원장 류동목
 기획진료부원장 및 QI 부장 이성복
 교육연구부장 김광철
 홍보부장 박상혁
 전체 구성
 교수진 12명, 전공의 21명
 치과위생사 15명, 치과기공사 2명
 치과방사선사 2명, 치과조무사 2명
 (2012. 12월 현재)

강동경희대학교 치과병원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본관 건물의 4층에 있다. 2006년 3월 29일부터 One floor service, Real time service, One stop service를 목표로 진료를 시작하여 현재 6개 진료과에 11명의 교수님들, 1명의 임상교수님, 21명의 전공의가 진료하고 있다. Dental CT, 각종 최첨단 레이저 장비, 디지털 네트워크 시스템, 최신 교합분석장치(T-scan), 치과 수술용 미세현미경 등 최신 고가의 의료장비와 깨끗한 시설을 갖추고, 치과대학 부속 병원으로 각 진료과의 대표적 교수님들의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 진료와 더불어 개인 치과 같은 환자의 편안함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분야 별 특화 치료실, 수술실, 방사선 촬영실, 대기실, 수납 창구 등 환자 편의성 중심으로 배치하였다. 진료 또한 불편한 층간 이동 없이 하나의 층에서 해결되어 환자 중심의 편리한 진료가 진행된다. 즉, 전문 진료진이 최신의 의료 장비와 술식으로 최상의 치료결과를 위해 즉각적으

로 협력하여 신속, 정확한 진료를 하고 있다. 또한 대학병원 답게 교육과 연구분야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계속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구강악안면외과 (가나다 순)

류동목 원장님, 지유진 교수님, 이덕원 교수님 외 수련의 3명이 구강 내 치아, 잇몸, 구강점막, 혀 등의 구강 내 기관과 상악골 및 하악골의 턱부분, 상하악골과 관련된 안면부에 관계한 외과적 진단과 치료를 하고 있다.

- 양악 수술 등의 악교정 수술
- 양성 및 악성 종양, 낭종에 대한 진단과 수술적 치료
- 치과 임플란트 매식 수술
- 악안면 외상에 대한 시술, 악안면의 다양한 감염증 치료
- 턱관절 질환에 대한 행동요법, 물리치료, 장치치료, 보톡스 치료, 단순 발치에서 매복된 복잡한 사란니 발치 수술
-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는 환자

의 다수 사란니 발치 또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정맥진정요법

소아청소년치과

김광철 교수님 외 수련의 2명이 진료하고 있다. 김광철 교수님은 경희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소아치과 주임교수를 역임 중이시고, 14년간 서울 수도권 지역의 복지시설 장애인 무료 치과진료 및 강연 활동 등을 해오셨으며, 지난 10월 29일 서울특별시 봉사상 시상식에서 '서울특별시 봉사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다.

- 수복 치료: 칫솔질 교육, 정기적인 불소 도포, 치아 홈메우기 등의 예방 치료와 치수치료 및 충치를 제거하고 수복
- 소아 외상: 손상 또는 탈락된 치아의 수복, 재건 혹은 유지 등을 도와 치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
- 소아 교정: 턱의 부조화나 빠른 치열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치료이며, 이미 발생한 경우 가철식 장치나 고정식 장치를 이용하여 고른 치아배열

- 을 만드는 치료
- 진정 치료: 치과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심하거나 치료 중 행동조절이 어려울 경우, 호흡 및 맥박과 혈액산소포화도 감시 장비를 동반하고 약물로 진정시켜 치과치료를 진행
- 장애인 치과: 치과 치료에 대한 협조, 적응, 인내력이 떨어지는 의학적 장애인과 치과 진료 시 행동조절에 문제가 있는 치과 장애인 등에 대한 치과 치료

치과교정과

강윤구 교수님 외 수련의 3명이 진료하고 있으며, 2012년 5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 112회 미국교정학회에서 table clinic을 진행하고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치과교정학회 제 45회 학술대회에서는 발표한 3개의 포스터 중 2개가 우수 포스터로 선정되는 등 학술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 소아, 청소년교정: 혼합 치열기 공간관리 및 성장 조절과 악정형적 치료
- 성인교정: 고정식 교정장치를 위주로 한 부정교합의 해소를 목표로 진료
- 설측교정: 교정장치를 설측에 위치시켜 심미적으로 치료
- 투명교정: 투명한 교정장치를 이용한 심미적 교정치료
- 수술교정: 악교정 수술을 동반한 술전 교정과, 술후 교정

- 턱관절교정: splint를 이용한 턱관절 치료를 동반한 교정치료

치과보존과

박상혁 교수님 외 수련의 2명이 진료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박상혁 교수님께서 브라질에서 개최된 IADR에 참석하여 포스터 발표를 하셨으며, 2012년 09월01일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보훈처 초대 보훈의료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또한 현재 치아의 냉동 보관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 보존 수복학: 우식이나 파절, 교모 및 마모 등으로 인한 경조직 결손을 진단하고, 적절한 수복재를 사용하여 결손 부위를 회복하여 치아의 기능 및 심미성을 회복함
- 근관치료학: 치수조직과 치근단 조직에 발생하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통하여 치아를 보존시킴
- 치아 미백: 선천성 혹은 노인성 치아 변색, 음식물에 의한 착색, 외상, 신경 퇴화, 그리고 오래된 보철물 등에 의해 변색된 치아를 원래의 색조로 회복시키거나 더 희게 하는 치료

치과보철과

이성복 부원장님, 이석원 교수님, 안수진 교수님, 박수정 임상장사 외 수련의 3명이 진료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브라질

에서 열린 IADR에서 포스터 발표를 하였고 이성복 교수님이 임플란트 연구분과 신입이사에 선출돼 8년간 활동하시게 되었다.

- 라미네이트, 지르코니아 크라운
- 금관, 도재관이나 가공의치, 수면 무호흡 장치,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
- 치과 임플란트, 악안면 보철

치주과

박준봉 학장님, 강경리 교수님 외 수련의 2명이 진료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 노년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박준봉 학장님이 초청강연을, 강경리 교수님이 구연 발표를 하셨으며, 박준봉 학장님은 일본 임상 치주병 학회 30주년 기념대회에서도 초청 특강을 하는 등의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또 매년 잇몸의 날 행사 개최와 무료 진료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한 잇몸과 치주치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 일반 치주 치료: 치석제거술 및 치근활택술, 치은연하소파술, 치주판막술, 유지관리 치료, 치과 임플란트 매식수술
- 심미 치주 성형술: 치근피개술, 치관연장술, 치은색소 제거술, 치은증대술 등을 시행
- 치조골 재생 수술: 치조골 이식술 및 조직유도재생술,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치조골 증대술



1 강동경희대학교 치과병원. 2 치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첨단설비. 3 소아치과 진료. 4 치과대학 수술.

대한 하모니카 협회장 홍정표 교수



네모 길쭉한 하모니카는 mouth organ, blues harp, French harp로도 불린다. 케이스 내에 길고 짧은 대롱 모양의 reed가 나란히 놓여 높고 낮은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19세기 초에 유럽에 소개되었던 중국의 생황이란 악기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짐작되는 하모니카는 Christian Friedrich Ludwig Buschmann이라는 천재가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이 독일인은 아코디언의 발명자라는 설도 따라다닌다.

아무튼 이 두 악기는 아메리카 양 신 대륙으로 건너가 가난하고 한 많은 흑인들과 원주민들의 시름을 달래주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blues harp라는 이름은 거기서 나왔다. 전문이 짧았던 그들은 유럽에서 건너온 악기라는 뜻으로 French harp로 부르기도 했다. 호주인들이 에스프레소, 아메리칸 커피를 숏 블랙, 롱 블랙으로 부르는 이유와 비슷하달까, 어쩐지 애달픈 이야기이다. 그랬



홍정표 교수

던 하모니카도 근래에 와선 연주용 악기로 거듭나며 악기로서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으니 세월이 많이 흐른 듯 싶다.

현재 대한 하모니카 협회장을 맡고 계신 홍정표 교수님은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하모니카를 불렀다. 당시 서울 중고등학교엔 특별활동 악기 연주 반으로 brassband와 하모니카 오케스트라 반이 있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가난하던 시절이라 악기 값이 적게 드는 하모니카 오케스트라가 마음에 편했다. 5중주도 하고 독주도 하고 했지만 오케스트라에

선 코드를 불었다. 하모니카 역시 음의 고저에 따라 테너와 베이스 등 각 파트가 있는데 더 세분하자면 first, second, celo, base, 코드, 호른으로 나뉘어진다. 60cm가 넘는 하모니카인 코드는 화음을 여러 가지로 넣을 수 있어 오케스트라의 박자와 화음을 맞춰준다. 독주용 하모니카의 종류는 복음 하모니카(두줄), 크로마틱 하모니카, diatonic 하모니카와 미니하모니카 등으로 나뉜다. 크로마틱 하모니카는 bending을 조절해 한 구멍에서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수 있어 재즈곡 등에 특히 많이 쓰인다. 주법은 독주의 경우 트레몰로, 바이올린, 분산화음, 베이스 주법 등 다양하다.

초보자의 경우 3개월 정도 연습하면 부는 방법뿐 아니라 특수주법까지 어느 정도 익힐 수 있어 연주가 가능하다. 국산화된 하모니카는 가격이 저렴해 2만 5천원~3만원 정도 한다. 전문가들이 쓰는 악기도 10~20만원 정도 하며 제일

비싼 코드는 150만원 가까이 된다. 교수님의 소년기를 아름다운 소리로 채워주었던 서울 중고의 하모니카 오케스트라는 학부도 등쌀에 5년 전쯤 없어졌고, 아쉽게도 그 명맥은 얼마 전 결성된 교수님을 포함한 졸업생 모임인 갈대청이란 5중주단이 이어갈 듯싶다.

교수님도 하모니카를 내내 부셨던 건 아니다.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소원해졌던 하모니카와의 인연은 학교 때 은사셨던 최용진 선생님을 2003년도에 다시 뵈면서 이어졌다. 그 후 하모니카 협회 일을 돕던 홍정표 교수님은 2005년 대한 하모니카 협회가 사단법인으로 부활하면서 아예 협회장까지 맡게 되었다.

2006년 경희 대학교 크라운 관에서의 협회 부활 기념 콘서트를 끝으로 이듬해 작고하신 최용진 선생님을 추억하는 홍교수님의 목소리에 깊은 안타까움이 배어났다. 1928년 최초로 결성된 평양 고려하모니카 밴드는 평양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었다. 원년 하모니카 세대이신 최용진 선생님은 해방 후 월남하신 후 1957년 대한 하모니카 협회를 발족하시며 남한 하모니카의 대부가 되셨다. 대한 하모니카 협회는 2006년 부활 공연 이후 경희대 실용음악과에 하모니카부가 생기고 졸업생들이 세계대회에서 속속 우승하면서 짧은 시간



경희대학교 치과병원과 동화약품 '잇치'가 함께하는 '잇몸앓이 건강강좌'에서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 홍정표 교수를 포함한 대한 하모니카협회 연주단이 구강건강에 도움을 주는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있다

내에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현재 협회에 인증을 받고 등록된 하모니카 강사만도 60명에 달하는데 하모니카 인구 저변 확대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교수님의 하모니카 사랑이 어떤지는 집에 하모니카가 27개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까? 쑥스러워서 사모님 앞에서 하모니카를 불어본 적은 거의 없다 시지만 막히는 차 안에서 목에 걸고 있는 미니 하모니카를 꺼내 종종 부신다고 한다. 크기가 2.5cm 정도 밖에 안돼 1 옥타브 밖에 소리를 못 내는 초 미니지만 동요나 좋아하는 노래를 부는 데는 문제 없다. 헝가리안 댄스, G선상의 아리아를 부르는 건 좀 어렵겠지만 말이다.

협회장을 맡으면서 교수님의 일상도 그동안 많이 바뀌었다. 1년에 1-2번 하는 정기 연주회, 장애인들에 대한 하모

니카 가르치기 봉사활동, 청소년 힐링 프로그램 참여, 수면 무호흡증이나 이 같이 환자들의 보조요법으로 하모니카 활용 등 교수님 생활 곳곳엔 하모니카의 흔적이 배어있다.

홍정표 교수님은 행복이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란 말씀을 하셨다. 어쩐지 앞으로도 죽 오랫동안 하모니카 협회장으로 봉사하실 듯도 싶다. 클래식 말고도 유행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하모니카 곡들도 많다. James Cotton의 "Slow blues", Neil Young의 "Heart of Gold", 김현식의 "한국사람"이나 "우리 이제" 같은 곡들 말이다.

글·이수정 약안면조직재생학
사진·김광순 직원



2012학년도 발전기금 입금 (2012. 08. 31 기준)

1억 원 이상	이창진
7천만 원 이상	(주)신흥 광약훈
5천만 원 이상	이재광 치과대학동문회(지순준 외)
3천만 원 이상	김학찬 장지우 전요한 치과대학대전지역동문회, (주)비스코덴탈아시아
2천만 원 이상	고광수 고철수 권영혁 김성기 김용래 김은철 박준봉 오구환 최대균 (주)지-씨코리아
1천만 원 이상	공희정 김광휘 김규남 김성욱 김승운 김여갑 김영훈 김용준 류동목 문정기 박양제 박영국 박주연 박태용 백두흠 서광원 송요선 신용범 신한식 이광섭 이규원 이기수 이두희 이상혁 이상복 이윤 이정우 이한우 장상건 장지현 정극모 정성민 조영욱 최영철 한만형 한정희 (주)덴티움, 굿월치과병원, 경희치과병원, 경희치과의원, 오스템임플란트(주), 오우대학, 참조은치과병원, 치과대학2회, 치과대학3회, 치과대학5회, 치과대학6회, 치과대학9회, 치과대학12회, 치과대학13회, 치과대학15회, 치과대학19회, 치과대학22회, 치과대학수원지역
8백만 원 이상	김광철 김세영 김인화 이진용 정규림 최기운
5백만 원 이상	고광준 권극록 권일근 김기태 김려수 김상일 김수철 김영진 김종환 김판식 김필수 김향경 김형찬 박기범 박능석 박도양 박상혁 박승훈 박영철 박용덕 박재홍 박태용 박희경 백동준 변욱 신명 신제원 양승춘 우이형 윤옥병 이건우 이근혁 이명성 이상래 이상철 이상호 이현우 임호남 장건택 정용식 정재규 조재민 조재오 조준영 조해성 지유진 지찬동 최규규 최근락 최성백 최용석 최유진 최인 최호근 허성운 허익 홍정표 황의환 황재상 (주)악어미디어, 굿월치과의원, 치과대학16회
3백만 원 이상	강기현 강승훈 고봉진 구한미 권규원 권순용 권용대 권태훈 권호진 김덕 김동호 김명환 김보혜 김석훈 김선규 김성용 김성환 김소현 김옥진 김우찬 김윤홍 김진오 김진철 김형남 김형섭 김형진 김효종 김훈회 남종현 마경화 민병순 박갑용 박남수 박동진 박미애 박상규 박상규 박상진 박성동 박수배 박희찬 백영완 부용철 성낙도 손세일 손원영 송창준 신민철 신민호 신완용 신의종 안민호 안희진 양영환 어규식 염상국 오범수 오병식 오성산 오승훈 오화탁 우정석 우택호 우형식 유석규 유신종 유영선 유용균 유충현 유휘열 윤덕상 윤인중 이근욱 이광희 이근호 이동식 이만섭 이백수 이상태 이영준 이용호 이재천 이종태 이진표 이철재 임성빈 임성수 임승진 임인하 장봉렬 장성진 장우익 장희웅 전양현 정동진 정병선 정순준 정연식 정운봉 정종혁 정창권 정철민 정충모 정형주 제한봉 조남성 조민규 조세중 조인교 조정근 조태희 조한국 조호구 주성숙 천강정 최병환 최부병 최재영 최정규 최현수 최호영 한승완 한용환 한훈 홍성태 홍영안 김정수치과의원, 이치과의원, 최신치과
2백만 원 이상	권기열 김기문 김도완 김동기 김명진 감방수 김성진 김옥현 김은 김원겸 김인수 김재승 김정우 김정희 김종규 김지태 김춘진 김홍모 나규균 류중균 모규업 문재룡 문향진 박노희 박선영 박성근 박성원 박수진 박재현 백종은 손일수 신동진 신현택 오인종 유경민 유재홍 윤석우 이규찬 이미경 이상복 이상훈 이수인 이은준 이정민 이종규 이준열 이창진 이필제 이해승 인영미 임태수 장수일 정주성 조민우 조승제 하정상 스트라우만멘탈코리아, 한기협치과대학1기동문,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정학교실 전공의 일동
1백만 원 이상	강정백 강한중 고진환 고천석 곽춘길 구국본 구분룡 구자경 구자룡 구재우 권수갑 기태석 길종선 김경용 김광휘 김귀원 김동규 김문기 김미경 김봉현 김상석 김선욱 김선호 김성길 김성철 김세일 김수강 김영일 김용구 김원겸 김재구 김재오 김재일 김재철 김정학 김종호 김종중 김진호 김철중 김충길 김태형 김택청 김해근 김현호 김혜경 김흥기 나성식 나종일 나태돈 남병우 남재형 노영익 류경희 류훈 문민연 문수인 문용환 문은영 민호기 박내길 박동원 박두중 박병길 박병욱 박봉규 박상규 박상기 박상현 박상훈 박석범 박순건 박순정 박영수 박영주 박은기 박일해 박재석 박정용 박철제 박철성 박현 박현석 배영수 백상규 백영걸 변태진 사영철 서경숙 서남영 서윤원 성락진 송근현 송민재 송재만 송근배 신동건 신동구 신혜연 안광식 안근규 안병구 안병두 안장원 안재희 안형준 어수철 엄인석 오세운 오세용 오정환 오창근 오충영 오현미 원미영 유신영 유인영 유주현 윤경도 윤동호 윤두근 윤민의 윤창규 이근중 이공훈 이광재 이교용 이동규 이병국 이병도 이병태 이상은 이상호 이선희 이상철 이세중 이세준 이승춘 이승택 이영규 이영근 이영석 이영식 이완규 이원섭 이원화 이인석 이재학 이재홍 이정열 이정현 이종인 이천복 이충복 이태수 이태호 이화연 이흥기 이희정 임기효 임길웅 임상욱 임종성 임천택 장영빈 장원종 장정태 장철민 장현주 장훈 전석열 전장환 전종혁 정관희 정대현 정선모 정용복 정인교 정주성 정철 정희일 조동석 조병도 조성국 조성열 조영진 조의현 조익주 조정현 조진호 지용기 지정호 지준순 차덕선 차애경 채영원 천무철 최명애 최상돈 최승규 최승현 최연석 최영범 최완침 최원재 최인식 최중우 최중실 최천영 하대주 한기림 한문식 한복식 한정희 한중수 한창규 한휘철 함동선 허귀남 현원섭 홍선희 홍진표 황용구 황용구 서산예치과, 세영치과의원, 송도드림치과의원, 이원준치과의원, 함께하는치과
1백만 원 미만	강남현 강대인 강승규 강주성 강철규 강혜령 강해성 고건호 고영훈 고일혁 고창배 고현 공선식 공순현 공준하 곽용훈 권구현 권순민 권정은 금구석 금미연 김경선 김광식 김교철 김남중 김규태 김남준 김대기 김명섭 김미경 김민성 김배경 김보균 김보라 김보선 김상균 김상우 김석용 김성원 김승일 김승일 김승일 김시석 김시원 김영기 김영덕 김영란 김영택 김윤희 김일환 김장욱 김재수 김중현 김창용 김철순 김태연 김학렬 김혜경 김호진 김홍광 나영민 노은희 류창수 류호경 모덕진 문영훈 문희현 민관순 박건호 박경아 박경일 박금출 박기현 박성규 박성규 박수정 박송 박용호 박원규 박재춘 박준수 박지혜 박창훈 박춘배 반태환 배기창 배일환 배한익 백기현 백진 백효찬 변현홍 서경성 서재승 서찬호 소용섭 손미연 송성국 송현우 신강섭 신동렬 신용문 신재창 양경돈 양광모 여병영 오나희 오승교 오승환 오우리 오정란 오정환 오주영 오현주 우승철 원현두 유용재 유지연 유지훈 유진석 유하균 유희승 윤성수 윤여진 윤원용 윤용섭 윤인택 윤현주 이대승 이동현 이석원 이성만 이수미 이수영 이수욱 이시원 이연수 이영희 이윤정 이은권 이은만 이을재 이인석 이정교 이정행 이정호 이지민 이지혜 이창규 이채숙 이태희 이한주 이현우 이현경 이현식 이혜영 임경석 임병진 임진혁 장영명 장영배 장예진 장형준 전성근 전영신 전찬덕 정남희 정민수 정성민 정성진 정연진 정연진 정은주 정의산 정준호 정지향 조규석 조영주 조윤숙 최대영 최동훈 최문철 최병준 최성연 최승모 최승현 최창규 최현용 최호영 최희철 하지용 하지양 한동인 한무현 한수희 한혜숙 홍동희 홍해룡 황동현 황운태 황선달 황지영 모마치과, 성모치과, 연수준치과의원, 프랜드치과의원

동문회 소식

- 2012년 3월 7일 초도이사회 (동보성)
- 2012년 4월 9일 발전기금 운영위원회
- 2012년 6월 3일 동창회장배 동문 골프대회 (히든벨리) 동문97명, 게스트 3명 참석 단체전 우승 16회 준우승 14회 3위 22회, 신페리오 집계 1위: 손세일(18회) 2위: 정동희(19회) 3위: 김병수(19회), 참피온조 우승 이성만(16회) 2위: 이용현(16회) 3위: 주보훈(16회)
- 2012년 6월 17일 전국치과 의사 테니스대회 YD OB팀 참가
- 2012년 6월 17일 전국치과대학 동창회 골프대회(창녕 힐마루) 부산치대 주최로 선수 조을훈(7), 최중우(14), 이용현(16), 김영훈(18)참가. 임원 나규균 회장, 박능석 총무이사, 김봉현 총무간사, 이성만 친교이사 참가.
- 2012년 7월 23일 동문주소록 발간

동문회 경조사

- 2012년 3월 2일 최유진 전 교수님 사모님 별세
- 2012년 3월 5일 20회 김소현 조모상
- 2012년 4월 14일 김일봉 전 교수님 별세
- 2012년 3월29일 김규택 전 학장님 별세
- 2012년 4월 14일 13회 최영림 대한여자치과 의사회 회장 취임
- 2012년 5월 16일 10회 박성환 장남 결혼
- 2012년 5월 20일 16회 조선경 모친상
- 2012년 6월 15일 15회 김중호 부친상
- 2012년 6월 30일 6회 최영철교수 장인상
- 2012년 7월 7일 8회 류동목교수 장녀결혼
- 2012년 7월 11일 12회 백남규 모친상
- 2012년 8월 2일 20회 최정규 조부상
- 2012년 8월 18일 9회 김학찬 모친상
- 2012년 8월 18일 13회 이백수 최영림 장녀 결혼
- 2012년 8월 25일 1회 조재오교수 정년퇴임 축하연

